

■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실효성 의문

불교재산 법적보호 기대
농지과장 전격로 무너져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가능토록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음에도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를 외면한 농림부 농지과장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있다는 것이 조계종의 시각이다.

13일 농림부를 항의방문한 조계종 재정국장 등에게 박영기 농지과장은 "4개 사항이 있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고해 불허했다"고 말했다. 남원시 충남도 경기도는 실상사 동화사 청계사의 농지취득 인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농지취득 여부는 농지과장 전격로 사항이다.

조계종 기획실 박종화계장은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취득 절차와 구비서류를 문의했으나, 이에 대해 '일단 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등 불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계종은 96년부터 농지법 개정을 종단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조계종은 삼보장재의 유실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의해 강제 수용될 경우 수용된 만큼의 다른 토지를 구입하도록 하는 '대토의 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사찰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

기해야 했다.

토지수용법에 의해 매각된 조계종 사찰의 농지는 2백64개 사찰 24만2천평에 이르며,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형편이다. 주지가 바뀌거나 연고자 사망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사찰재산의 망실이 우려되어온 것이 현실이었다. 농림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조계종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받아들이던 것도 조계종의 사정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농림부 농지과에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여러 이유로 불허함에 따라 법적 보호 장치의 효용성을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계종이 곧바로 정부와의 관계 재정립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도 재산 망실의 보호 장치가 농지과장에 의해 쓸모없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에서 연유한 것이다.

특히 조계종 전 총무원장과 당시 농림부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협의사항을 전격로 무너진 이유도 농지과장이 허가하지 않은 상황도 조계종으로서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조계종은 정부에 기만당했다는 불쾌감을 애써 감추고 있지만, 계속 불허할 경우 정부와의 관계 재정립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은 올 1월 고산스님 체제를 맞으며 안정기반을 다지고 종교간의 화합에 앞장서는 등 98년 사태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보여줬으나,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분규를 겪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교육원과 포교원은 승려교육제도 개선, 포교사단 전국위원회 구성 등 괄목

주요종단 99년 결산

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태고종은 <태고종사> 발간 작업에 들어가는 등 종단의 정체성 확립의 기반을 다졌다. '선교후속도' 제도의 도입도 주목된다. 천태종은 2004개 사찰을 육성 또는 기공하며 교세를 넓혔으며, 국제교류도 활발했다. 진각종은 성초 통리원장이 교계 원정금으로는 최초로 방북, 남북합동토론회 개최 등을 함의해 남북불교교류를 크게 진전시켰다. 복지사업의 활발한 전개도 눈에 띄었다. <편집자주>

조계종 '분규 가슴앓이'...신도 교육·조직화 기틀 마련

조계종은 지난 해 분규를 마무리하며 치러진 총무원장선거를 통해 고산스님 체제를 갖추며 안정을 되찾았다. 7월 발표한 종단 중·장기 발전계획과 이에 따른 60개 사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분규의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천주교 서울교구를 방문해 종교간 화합의 기반을 다진 것도 성과로 기록된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재원의 결과로 조계종은 또한번 혼란에 빠졌다. 정화회의가 제기한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소송과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고산스님이 종도하차했으며, 우정구로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로 불자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11월 15일 치러진 30대 총무원장선거에서 정대스님이 당선되면서 사태는 일단 수습됐지만, 사면이라는 관문을 남겨 놓고 있다. 사면을 놓고 일부에서 신중론을 제기하고, 사면 대상자 중에서는 사면을 집단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자칫 새로운 분규의 불

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정화회의에서 또다시 정대스님을 상대로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중앙총회 5월 '중앙총회 운영편람' 제작, 서면중재제도의 도입하는 등 어느 총회 때보다 효율적인 총회운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종도들의 기대를 모았다. 10월 종단사태 때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 종도들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11월 총무원장선거 이후에는 내년도 중앙총무기관의 예산심의 등 중대한 인건을 논의해야 함에도 총회를 열지 못해 내년도 신규사업의 집행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총회에서 의사결정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학연구모임이 파행적인 운영을 보임으로써 '총회 무용론'이 나왔다. 총학연구모임의 새로운 성격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월 17일 은해사 승가대 학원이 10명의 강사를 처음으로 배출한 것은 지난 95년 별원화

이후 승가전문교육의 제도화로 나타난 가장 큰 결실이었다. 해인·송광·영산·금강유원 등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것은 당시 갈수록 해이해지는 계층정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미(니)의 제 시행령을 공포하고도 시행에 실패한 것을 뒤늦게나마 사미(니)의 제 미착용자에 대한 재제조치를 마련, 강력히 시행한 것은 승가 위계 확립과 승종진작, 면학풍토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통선원에 대한 조계종 차원의 현황 파악과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도 뜻깊은 일이었다.

그러나 교육원은 김포학사의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지원 마련 등 예산상의 난제를 남겨두었다. 지방승가대학의 확인정원 하향선을 30명에서 10명으로 하향조정된 것 역시 교육개혁안의 골격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동일직종 연합회 조직과 직장직능 대표자협의회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직장직능 단체 활성화에 앞장서 직장직능단체

가 예년에 비해 3배로 늘어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구어 냈다. 또 불교여성개발원 설립을 가시화하는 등 여성불자의 조직화를 시도했으며, 불교상당교육협의회와 불교상당교육원 설립의 기초를 다지기도 했다.

특히 9월15일 신도법을 개정해 신도교육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기복불교의 폐단을 방지하고 바른 선행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재작성한 갖기 신도등록 사업은 등록자가 20만명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나타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20일 포교사단 전국운영위원회(팀장)회의를 개최해 83개의 전문 포교팀을 구성토록 한 것은 '활동하는 포교사'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처음 시도된 스님 대상의 포교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스님들의 포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성운·김재경 기자 (swjung@buddhapia.com)

태고종 침체 벗고 '태고종사' 발간 정체성 찾기 노력

2월 9일 덕암스님의 제16세 종정 취임을 시작으로 '99년을 연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그동안의 침체를 벗고 전통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한 한 해였다. 종단의 숙원사업인 <태고종사> 발간의 첫 삽을 떴고 사이버포교시대에 발맞추어 총무원내 통합정보시스템망을 구축, 종단 스님들과 사찰, 단체들의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국 시

도교구 총무원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눈길을 끈 사업이었다. 각 교구별로 힘을 모아 일년내내 실시한 자비의 쌀모으기 등의 자비행은 실천자와 독거노인 등 IMF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이 됐으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만돕기, 비록보내기 등 북한동포돕기에도 앞장서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면목을 보여주었다.

특히 인천총무원(원장 대은)이 주축이 되어 백령도의 불교행사방해사건을 해결한 것은 불교계가 단합해 종교편향을 바로잡은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올해 제23기 합동독도수계산림에 참가한 행자 수는 지난해의 두배가 넘었으며 그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종단의 앞날을 밝게 했다. 제23기 수계자들부터 종단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야만 승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은 승려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선교후속도' 제도 확립에 대한 종단의 의지를 엿보게 했다.

그러나 분담금 납부가 저조, 종단의 재정적 어려움은 여전히 분담금에 대한 긍정적인 책정과 납부에 관한 입법과 이에대한 종도들의 인식전환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태고총림 선암사의 잇따른 불화도난은 비록 성보박물관 건립으로 사후조치는 되었지만 성보도난의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웠다.

천태종 사찰 낙성·불상봉안 잇달아...복지기반 구축

2천3백여평에 달하는 울산 정광사, 통영 서광사 진주 월경사동 경남지역에 대규모 사찰들이 들어서 지지체시대와 맞물리는 지역포교에 기반을 다지고, 김천 금강사, 병곡 홍교사, 논산 삼화사, 예천 법흥사, 울릉도 성인사, 흥천 강릉사 등 전국 각지에 말사들이 속속 완공되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찰 낙성과 불상봉안

법회가 잇따라 열린 한 해였다. 각종 포교사업 등이 기공하거나 상량식을 갖고 부산 삼광사와 서울 관문사는 각각 30주년과 1주년을 맞아 부산과 서울에서의 포교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새삼 다짐하기도 했다. 특히 관문사는 범종단적인 다양한 문

화행사와 학술행사를 유지, 불교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0월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이 정부인가를 받아 복지불사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구축에 나섰으며 향후 2만여명의 후원회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복지타운 건설계획도 밝혀 복지불사에 대한 종단의 의력을 엿보게 했다. 또한 종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종단전산화에도 주력했다.

법화경 사경불사 법화산림대법회가 8월에 열려 2만여명의 신도가 동참해 국가경제회복을 기원했으며 일본과 중국과의 교류를 다각도로 추진함은 물론 총무원장 윤덕스님 등 종단 간부들이 12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99 세계종교회의에 참석해 한국 천태종을 세계종교인들에게 알리는 계기도 만들었다.

진각종 남북불교 교류·국제구호·문화사업 등 활발

불교종단 원정금으로는 최초로 성초통리원장이 북한을 방문, 남북불자들의 통일토론회 개최 등을 합의하는 등 남북불교교류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LA에 이어 미국 워싱턴에 심인당을 신설, 해외포교를 본격화하고 네팔과 스리랑카에 복지재단 지부를 설립, 종단 포교와 국제구호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을 천명하는 등 대외적인 사업을 강화

했다. 특히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을 기리는 창작국악교성곡 '혜초'공연을 적극 지원한 것은 진각종이 향후 범종단적인 문화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문화를 통한 포교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설립 1주년을 맞는 진각복지재단은 사회봉사단을 꾸려 분야별 봉사사업에 나섰고,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제천청소소년수련관,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선재의 집 2호 그룹홈 등을 수탁, 복지불사를 활발히 펼쳤다. 11월에 개최한 밀교교리대법회는 진각종이 그동안 단종으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대중과 친숙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지자체와 연계해 계획하고 있는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작업이 본격화 되었고 통리원과 교육원 각 부서에 근거거리통신망을 설치하는 등 종단 전

산화와 홈페이지를 완성했다. 특히 최근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종단 이미지 통일화(CIP) 작업은 이러한 열린 종단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정보를 격조간 '밀교신문'으로 제호를 변경 발행해 포교기능을 강화했다.

밀교를 일반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서적발간, 대중에 친숙한 형태의 다양한 법회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경숙 기자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늘의 연속이건 만 인간은 세월에 시작과 끝이라는 매듭을 지어가며 삶을 정돈하고 새날을 설계한다. 이제 곧 2000년 1월 1일, 지구촌은 세번째 천년대의 21세기 맞이로 들떠있다.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지루해 한다. 눈스름 사회에서 바빠 살기 때문일까. 매사를 서두르고 재촉한다.

새 천년과 21세기 맞이도 그렇다. 새 천년 시작을 놓고 2000년이나 2001년이나 논하더니 결국 1년을 앞당겼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노래를 하루라도 빨리 부르고 싶었나 보다.

우리나라도 세계 여러 나라의 발맞춰 새 천년을 맞는다. 2000년 1월 1일 한민족 해맞이 축전 행사장인 경북 포항시 호미곶 광장에 청동조형물 '상생(相生)의 손(영남대 김승국 교수)'을 설치했다. 서울 인구 3분의 1이 동해안 등 바닷가로 해맞이를 떠난다고 한다. 새 천년 새 해를 맞이해 앞서 꼭 평겼으면 싶은 일이 있다. 20세기와 목은 천년을 삼키는 1999년의 낙조에 지난 세월을 회광반조(廻光返照)하는 일이다. 그 비취음이 없는 해 맞이는 자칫 욕망만을 부풀리게 된다.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지난 천년의 서양역사를 '나 밀레니엄(The Millennium)'이라고 규정했다. '나 중심의 삶'이란 말이다. '나 중심의 삶'이란 지극히 이기적인 삶이다. 아상(我相)덩어리다.

목은 삶을 거울삼아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타적 삶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서로 상생의 손을 잡을 수 있다. 거기서 불국토도 실현된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타적 삶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 보자. 지금 여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작은 못처럼, 조약돌처럼, 소금처럼, 그러면 (기신론)에서 설한 체승용(體相用)의 작용처럼 착한 인(因)을 닦고 착한 과(果)를 얻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쓰여지는 사람은 세월이라는 배에 실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손으로 세월이라는 배를 운전할 수 있다. 자기가 탄 세월의 배가 어디쯤 향해가고 있는지 2000년 새 아침이 밝기 전에 점검해 보자.

목어 세월

최정희 (본지 편집위원)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새천년의 신비한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향. 연말연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오분향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1.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2.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3.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4.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5.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6.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7.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8.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9.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10.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生氣香 효능: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마음이 안정되고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담보·중풍·뇌·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보원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제조원: 만복당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 내 사업부 해인선원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4-5828 제작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한빛은행 550-046374-02-003 예금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